불교미술 작가들이 그려낸 마음의 형상들

한국불교미술협회전 '유심형상'
10월 20~26일 한벽원미술관서
회원 60여 명 출품작들 선보여
'올해의 작가'엔 황체성 작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김선희 협회장의 작품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불교미술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선희)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청동 한벽원미술관에서 제33회 협회전을 개최한다.

1980년 창립된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불교미술 단체로서 지난 45년간 정기전과 특별전을 통해 불교미술의 대중화와 발전을 이끌어 왔다. '유(唯)·심(心)·형(形)·상(像)'을 주제로 열리는 서른 세 번째 협회전에는 강수경, 서칠교, 진철문 등 전문 불교미술 작가 60여 명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작가들은 전통적인 불화와 불상, 공예부터 현대미술·미디어와 접목된 색다른 불교 작품들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는 특별세션으로 동국대 서울캠퍼스·WISE캠퍼스·한국전통문화대 졸업생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는 불교미술의 미래를 이끌 신진 작가와 기성 작가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미술을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희 한국불교미술협회장(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은 "불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유심(唯心)은 모든 존재와 세계가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는 단순한 교리적 개념을 넘어 불교 예술의 근본적인 주체이자 시각적 창조의 원천으로 작동해 왔다"며 "이번 협회전은 이 같은 경전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이 곧 세계가 되고 예술이 되는 불교미술의 깊은 사유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미술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사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끊임없는 학문적 노력, 창의적인 예술 활동이 요구된다"면서 "한국불교미술협회는 한국불교미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올해의 작가'로 황체성 작가를 선정했다. 황 작가는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한국불교미술협회전(2024), 한국전통회화협회 창립전(2025) 등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개인전 '상상相想'(2023), 무우수갤러리 기획초대전 '상상붓다'(2024)를 진행했다. 2023년 천태예술공모대전 특선, 2025년 갤러리한옥 불화·민화공모전 불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실력 있는 신진작가이다.

황 작가는 오는 9월 24~29일 서울 종로 선아트스페이스에서 세 번째 개인전 '발원'을 연다. 황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전통가사 대신 오늘날 정장을 차려입은 부처님 등 부처님의 형상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이 같은 시도는 '지금의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실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됐다"면서 "어쩌면 부처님은 거창한 형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누군가의 모습으로 조용히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전시를 통해, 그 마음이 예술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성파 스님·제자들 '옻칠 한국화' 선보인다

11월 30일까지 울산 만디서
'수기맹호도' 등 작품 전시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옻칠 한국화 사제전'이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울산 태화문화공간 만디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성파 스님과 제자들의 10여 년 수행과 예술적 결실을 시민과 불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또 성파 스님의 대작 '수기맹호도'와 '피안으로' 등이 전시돼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파 스님은 "옻칠 한국화는 전통문화예술의 맥과 수행적 삶이 맞닿아 있는 작업"이라며 "울산에서 불교예술과 한국화의 새로운 가치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라고 말했다.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성파 스님과 불일아트아카데미 제자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울산 전시인 만큼 시민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조계종 울산광역시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가 주관하며 울산광역시가 후원한다. 개막식은 9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됐다. 052-243-9500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파 대종사 작품 '수기맹호도' (2012).

핫한 '박물관 굿즈', 우리도 만들어 볼까

불교중앙博 '다량소장처 교육'
10월 15~16일 굿즈 등 주제로
국중박 10월 1일 '우리 공예美'
굿즈 개발자 대상, 유홍준 직강

최근 핫한 문화콘텐츠로 부상한 '박물관 굿즈' 기획 등을 전문가들에게 배워 볼 수 있는 강의가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10월 15~16일 1박 2일 간 '2025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전문교육'을 아미드호텔 서울 강의장과 창덕궁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박물관 문화상품(굿즈)'과 '박물관 홍보영상 기획' 주제 강의, 창덕궁 현장 견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0월 15일 첫 번째 강의는 진나라 국가유산진흥원 공예산업진흥실장이 '국가유산이 문화상품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최근 주목 받는 문화상품 트렌드와 문화상품이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소개한다. 이어 이종철 영상촬영 PD가 '박물관 홍보영상의 사례와 활용'을 주제로 국내외 박물관 영상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전시 홍보 영상부터 관람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까지 목적별 영상 제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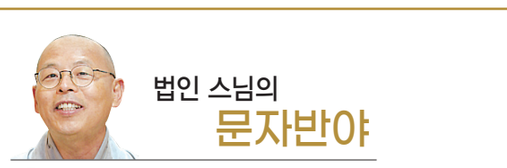
둘째 날인 10월 16일에는 창덕궁 현장 견학이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10월 1일 오후 3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주제로 한 '뮤지엄 아카데미 분야별 과정' 특강을 개최한다. 대상은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다.

특강 주제는 '우리 공예의 아름다움: 문화상품 개발자를 위한 특강'으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유 관장은 강연에서 공예의 본질적 속성인 쓰임새[用]와 아름다움[美]의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전통공예에 보이는 실용성과 조형성의 조화, 문화산업 자원으로서 전통문화의 재해석과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다룰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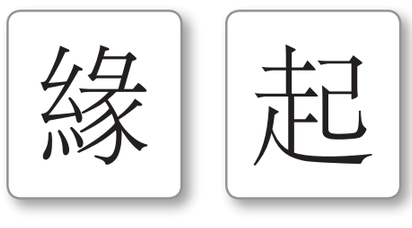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통찰과 선택, 능동적 변화

⑪ 연기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자", "전생부터 삼천생의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다"와 같이 '인연(因緣)'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나, 흔히 우연이나 숙명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붓다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어우러져 발생한다고 통찰했다. 연기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줄임말로,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이다. 기쁨과 슬픔, 전쟁과 평화 모두 인간의 의도와 주변 조건이 만나 만들어 낸 결과이다.

연기법은 불교 교설의 근본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 이것이 발생하면 저것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것이 연기법의 기본 공식이다. 업보란 몸짓과 말, 그리고 의도적 행위가 인연이 되어 드러나는 결과를 뜻한다. 사성제(四聖諦) 역시 고통과 그 원인, 열반과 그 조건을 설명하는 구조로 연기법에 기초한다. 무아(無我)와 공(空) 또한 연기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존재의 실상을 밝힌다. 〈맛지마 니까야〉에서 사리불 존자는 "벗들이여, 세존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연기법은 해탈과 안락의 길을 열두 단계의 조건 연쇄로 구체화한다. 무명(無明)은 욕탐을 낳고, 결국 생로병사와 온갖 근심과 고통을 일으킨다. 따라서 붓다가 연기법을 설한 뜻은 두 가지다. 첫째, 세상의 이치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라는 법칙을 통해 어리석은 의도와 행위를 멈추고 지혜와 자비를 깨닫도록 이끄는 데 있다. 대승불교에서 해(解)와 행(行)이 함께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에 부합한다.

마르크스는 27살에 이렇게 말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해석해 왔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연기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삶과 세상을 단순히 해석하는 관찰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와 우리가 빚어낸 현실을 통찰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세워 실천해야 한다. 붓다가 십이연기에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환멸문(還滅門)'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행이란 곧 연기법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만들면 있고, 만들지 않으면 없다. 연기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에 따른 행동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